

비사적 주거의 등장과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and Introduction of Un-private House

김 소 희*
Kim, So-Hee

Abstract

Despite its relatively small size, at least compared to other architectural programs, the house figures large in the cultural imagination. Closely identified with the individual and nuclear family, it has been frequently considered as an expression of widely held, even universal, values. Conversely, the private house has also been emblematic of more subjective desires, that change not only from person to person but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Certain conclusions can be drawn about the status of the private house at the end of the century, both as cultural invention and as a product of the autonomous discipline of architecture. The contemporary loftlike living space is similarly associated with work, given its emergence as an alternative home for individuals wanting space in which to live and work. In the case of what might be called the "un-private house", it is often a digital presence and the change of family system.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fine the un-private house through public/private.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un-private house are as follows; 1) Alternatives-large open space with multiple function and collective free plan 2) Dematerialization- steel and glass with visual openness and ambiguity 3) Digital & Interfaces- fold and screen using technology and program. Especially, the un-private house is designed to provide individuals with emotional, superficial, and synergistic space, focusing on the personal life-style.

Keywords: Un-private house, Alternatives, Dematerialization, Interfaces

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건축 전반에 걸쳐 주거에 관한 논의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며 디지털로 표상되는 새로운 테크놀러지의 시대인 지금, 주거에 관한 생각도 바뀌고 있다. 비교적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개인의 문화적 상상력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적어도 다른 프로그램들과는 비교되어지며, 그것은 매일 매일의 원초적인 필요성을 요구하는 "은신처(shelter)"로서 인간이 만든 환경의 근본적인 건물군이자 가장 정복되어질 수 없는 요소이다. 특히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중요시 여기는 사적 주거(private house)는 전체 건축 역사를 통해 유일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최근의 급변하는 생활방식의 변화, 즉 가족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개인의 개성과 인간 환경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주거 의식의 변화는 이에 따른 요구에 대응하는 방향으로의 새로운 주거디자인의 성립

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CMC: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¹⁾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발달 즉, 디지털의 출현 역시 새로운 주거 공간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오늘날, 주거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건축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사적 주거에 대한 공적 영역(public space)의 강한 물리적 경향으로 사적 영역(private space), 공적 영역 사이에 경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²⁾.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대에 뉴욕 근대미술관(MOMA: Museum of Modern Art),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MACBA) 등 세

1) 컴퓨터를 매개로 하는 커뮤니케이션과 그 과정을 칭하는 것이다. 사이버 공간상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CMC의 특성은 사이버 공간의 텍스트를 통한 상호작용이므로 비언어적이고 상징의 작용이 없는 감정이 배제된 것이다. 2) 주거공간의 구성은 그 기능에 따라 가족생활과 접객을 위한 공적 영역(public space)과 개인을 위한 사적 영역(private space), 가사나 위생, 연결 복도와 같은 반공적 영역(semi-public space)으로 나뉘어진다. 여기서 사적 영역의 중요성을 건축 계획시 강조한 경우를 사적주거라 하고 공적영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경우를 공적주거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테마가 되는 un-private house는 사적 주거에 새로운 방법으로 공적 주거의 성격이 부여된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를 변화된 주거 생활의 요구에 대응하는 하나의 가까운 미래 주택의 작은 흐름으로 보고 비사적 주거라 칭하겠다.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박사수료

계 각국에서 5차레에 거쳐 현재의 문화와 주택, 프라이버시라는 테마를 통해 비사적 주거(un-private house)를 새로운 주거 건축 디자인의 한 예로 보는 전시회를 가졌다. 이는 일과 여가, 급속히 변화하는 미디어와 기술의 발달, 생활 방식에 대한 새로운 건축적 해석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하겠다.

본 연구는 최근 실험적 경향으로 등장한 비사적 주거에 대한 공적/사적 개념의 정리를 통해 새롭게 조명 해석함으로써 미래 주거건축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가족제도 및 개인과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주거 공간의 다목적 기능이 가능해지면서 주거 공간의 성격이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사적 개념 변화의 과정을 통해 분석하고 증세와 근대, 20세기 중반 이후, 주거의 변화상을 비교하고 비사적 주거의 사회적 등장배경과 개념을 찾아내고자 한다. 최근에 발표된 외국사례를 대상으로 한 작품 분석을 통해 건축 공간에서 재료, 기술, 기능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비사적 주거의 건축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새로운 가족상과 사회제도 그리고 건축설계 시스템을 반영하는 가장 대표적 프로그램인 단독 주택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렘 클라스, 벤 반 버클,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 MVRDV 등의 작품을 통해 20세기 후반, 세계 건축가들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 주거건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 주거 공간 성격의 변화

1. 사회적 배경

1) 가족 제도에 대한 인식 변화

19세기 후반 톨스토이는 그의 소설 「Anna Karenina」의 서문에 가족의 행복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산업 혁명 후 가족제도에 대한 그 당시 사회적 상황을 잘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19세기까지 가족이란 용어는 핵가족과 적어도 혈연과 혼인에 의해 이루어진 확대 가족으로 설명할 수 있었고 19세기에 만연한 사적 주거는 거의 가족만을 위한 고립된 주거 형태였다. 심지어 이 시대의 가족은 작은 교회와도 같은 것이었다. 아이들의 위상과 결혼관의 변화로 내부지향적이고 폐쇄적인 핵가족이 형성되었는데 이는 핵가족 단위를 둘러싼 경계를 강조하는 것으로 작업장과 도시의 침입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미이다. 그러나, 핵가족화가 가져오는 부부중심의 가족제도에서 오늘날의 부부관계의 붕괴는 가정의 붕괴를 예고하고, 내

부 공간은 그 이전의 다목적 공간과 함께 점점 기능별로 세분화된 공간으로 변했으며 이것은 가족 구성원의 분화와 맞물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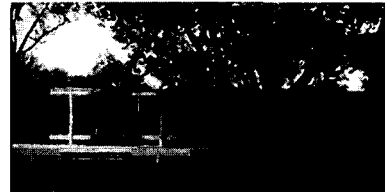


그림 1. Ludwig Mies van der Rohe, Farnsworth House, Plano, Illinois, 1946-51.

예를 들어, 전문 직업 여성의 증가로 아이없이 그들의 인생을 즐기자는 덩크족³⁾의 등장과 독신자의 증가, 평균 수명 연장과 함께 노인의 경제력과 교육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따로 살기를 원하는 노인부부의 출현으로 새로운 테크놀러지에 의한 실험적 주택의 좀더 개성적인 생활 양식을 창조하려는 욕구도 커지게 된다⁴⁾. 따라서, 아이가 없는 젊은 부부 사이에는 매우 다른 공간적 요구 조건이 생겨나게 되어, 어떤 음향적 혹은 시각적 프라이버시의 보장도 주거 내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되었고 1층과 2층의 구분에 의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기능적 구분 없이 다른 선택적 상황을 가지게 되었다. 미스(Ludwig Mies van der Rohe)의 판스워즈 주택(Farnsworth House)은 40대 후반의 판스워즈를 위해 지어졌는데 그녀는 어머니도 아내도 아닌 전문직의 프로였고, 가족 구성원에 대한 다른 고려도 시도되지 않았다.

과거의 확대가족, 핵가족이 개인의 의지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인습적 강제에 의해 결성된 것이라면 선택 가족⁵⁾은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결혼관습에 대한 부정, 가족의 붕괴, 여성 인구의 사회적 진출의 증가,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령화 인구의 팽창에 따른 임의적 구성이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신념은 오늘날 사회에서 젊은 남녀에게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근대의 핵가족 제도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접어들어 핵가족 구조에서 벗어나 가족이 아닌 개인이 중심이 된

3)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면서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로 덩크족(DINK: double income no kids)라 부르며 최근에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4) Deyan Sudjic, The twentieth-century house, Glasgow, 1999, p. 6-10.

5) 본 연구에서는 혈연에 아닌 개인의 의사에 따라 가족을 구성하는 최근의 가족 구성형태를 선택가족이라 명명하겠다.

족,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가족이 아닌 개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대두는 폐쇄적이고 혈연 중심의 가족 제도가 아닌 개인 각자의 의지로 결정하고 개방적인 선택에 의해 생성되어 가는 개인 중심의 가족 형태가 부분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개인의 의지에 의해 개인 중심으로 가족이 성립된다는 측면에서 선택 가족이라 명명하고, 이러한 상황을 오늘날 현대에서 간과할 수 없는 가족 구성의 한 형태로 여기고 제도적으로도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대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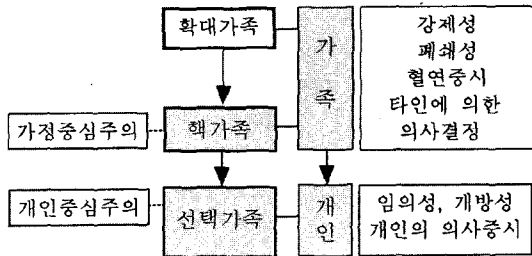


표 1. 가족 제도의 변화

2)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산업혁명 이후, 다양한 직종의 발달로 직주 근접이 불가능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오히려 전자통신의 발달에 힘입어 직주 일치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택 근무가 빈번해짐에 따라 하루 24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게 되고 일과 휴식의 구분, 전문적인 일과 가사나 개인 용무의 구분이 모호해지며 낮보다 밤에 더 많은 활동을 할 가능성이 커지는 등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중세 공간과 비슷한 주거 작업공간의 재건은 비교적 일반적인 해가 되어 모델에 의해 멀리 떨어져 있는 고객과 연결하고 전체 환경을 뒤바꾸어 놓았다. 결국 중세 상인의 작업공간에서의 소란스러운 움직임이 아니라 디지털을 통한 정보의 부드러운 흐름으로 대별된다.

디지털의 출현으로 근대의 사적 주거와는 다르게 재택 근무를 위한 혹은 거주자의 다양한 의도를 통한 사회적 목적을 가진 공간이 주거 내에 출현하게 되었다. 유엔 스튜디오(UN studio)의 뫼비우스 하우스(Mobius House)의 공간은 시작도 끝도 없는 꼬여진 리본의 조각과도 같은데 이중으로 꼬인 도넛 모양의 다이어그램은 두 개의 서로 얽혀 있는 경로의 구성으로 이어진다.

6) 최근 SOHO(small office home office)라는 개념으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비즈니스를 함으로써 틀에 박힌 근무 환경에서 탈피, 자유 직종을 추구하는 소규모 그룹에 의해 활성화 되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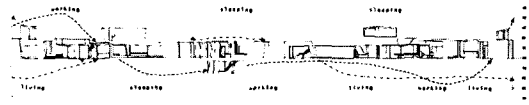


그림 2. UN Studio, Mobius House, Netherlands, 1998, Unfolded sections diagramming spatial flow.

이것은 작업과 거주를 통해 두 사람이 함께 그러나 따로 떨어져서 특정한 지점들에서만 공유하도록 하는 기능적 프로그램을 적용시킨 것이다.

2. 사적 주거의 성격 변화

1) 공적/사적(public/private) 주거

중세 시대의 주거 공간은 주거와 직장이 분리되지 않았으며 가족의 개념이 약하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 주인, 하인 모두 같은 침대에서 방이 아닌 곳에서도 함께 취침했다. 그림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하인은 산모 옆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이를 통해 중세 홀의 다소 공적인 혼합된 성격을 알 수 있다. 산업혁명과 도시의 발달로 새로운 부부중심의 가족관이 생겨나고 근대의 폐쇄적인 사적 주거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프라이버시의 보호는 근대 이후 주거에 있어 주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림 3. Artist unknown, The Birth of Caterina Comaro, 1600, Isabella Stewart Gardner Museum, Boston.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래 가족의 개념 변화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급격한 성격 변화를 가져왔다. 가정으로의 미디어와 기술의 침투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에 새로운 관계성을 가져왔다.

2) 비사적 주거의 정의

20세기 후반에 나타나는 사적 주거의 경향은 근대의 전통적 사적 주거의 설립 패턴과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오히려 이는 전통적 사적 주거와는 선행하는 전례로서 중세 홀의 공적 영역과 많은

7) 이진경, 근대적 주거 공간의 탄생, 소명출판, 2000, p98.

유사점을 가지며 중세의 공적 주거의 일면을 드러내게 된다. 중세 주거에 있어 중요한 것이 작업과 상업 행위를 주거 공간 내에서 함께 하는 것인데, 최근의 주거 공간 역시 컴퓨터 통신의 발달로 일과 주거를 함께 하는 다목적 기능을 가진 공간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 연관성이 있다 하겠다. 이렇듯 주거에 있어 공적 영역의 강한 정향은 실의 구획적인 부분보다는 오히려 크고 열린 공간을 원하고 새로운 재료의 기술적 적용으로 과거에는 보기 힘들었던 대담한 디자인적 적용이 가능해 졌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비사적 주거라 정의하고 실험주택으로서의 비사적 주거의 등장과 건축적 특성을 찾아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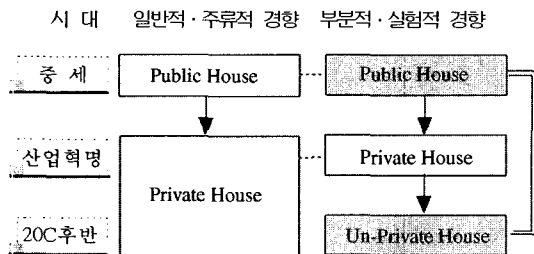


표 2. public / private / un-private 변화과정

한 가지 주지할 사실은 중세의 공적 주거 이후 근대의 사적 주거는 현대에 와서도 일반적으로 주류를 이루는 경향의 주거이며 비사적 주거는 앞에서 다룬 사회적 배경에 의해 부분적이고 실험적인 경향으로 조금씩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비사적 주거는 사적 주거와 완전히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가족보다는 개개인의 아이덴티티를 통한 고유성을 획득하는데 근본적 의도를 둔 더욱 확장된 사적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개인이 선택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의해 컴퓨터를 통한 공적 성격을 확보하여 혹은 유리 등 새로운 재료의 기술적 사용으로 시각적, 물리적으로 공적 영역을 받아들이며 외부 공간의 내부 공간으로의 침투에 따른 내 외부의 실제적인 경계해체와 다목적적인 공간의 획득을 가능하게 한다.

III. 비사적 주거의 건축적 특성

비사적 주거의 등장을 건축적으로 가능하게 한 요인에 비중을 두고 선행적으로 최근 발표된 외국 주거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새로운 개념을 통한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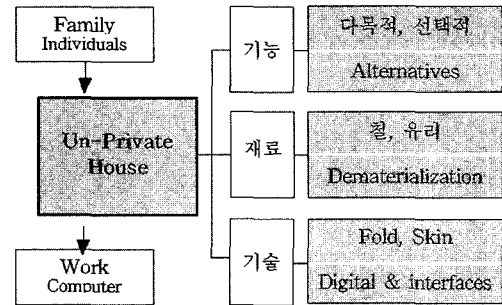


표 3. un-private house의 건축적 특성

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 것은 미적인 면에서 과거와는 다른 재료의 의장적 사용과 함께 구조적인 면에서의 디지털을 통한 기술을 주거에의 적용, 기능적인 면에서 다목적적인 공간의 유도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비사적 주거는 기술적, 재료적 원천에 의해 건축이 기능적으로 발휘될 때 그 의미를 발한다고 할 수 있으며 각각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재료의 비물질화

1) 철골과 유리, 감각적 재료

철골구조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철과 유리에 의한 공간의 표현 방법이 발달하였으며 유럽의 근대 거장 미스 반데 로에의 영향과 함께 현대에 이르러 유리는 철골과 결합하여 첨단 기술적인 재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단순한 외부를 향한 개방성 뿐만 아니라 외부와 내부의 경계 자체를 허무는 모호성까지 갖추게 되었다. 임스(Charles & Ray Eames)의 최초의 철골 주택의 외관은 새로운 실험 의지를 야기하는 초기의 예로서 철골로 이루어진 프레임 사이에 다양한 색깔로 이루어진 합판 패널이 끼워져 있다. 이 패널을 언제든지 바꿔 끼울 수 있게 하여 견고한 벽체 보다는 가변적이고 일시적인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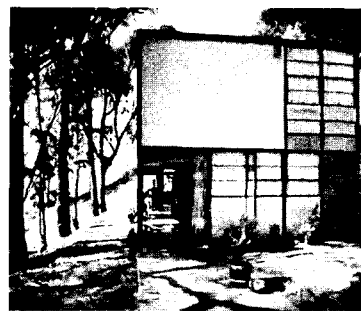


그림 4. Charles & Ray Eames, Eames House, California, 1945-49.

8) 여기서의 전통적 사적 주거는 산업혁명 이후 성립되고 20세기 주거의 주된 개념이었던 근대의 사적주거를 의미한다.

물과 같은 느낌을 강조하였다. 기하학적인 첩골 프레임은 일상적이고 대중적인 패널을 조절하는 틀이 되고 감각적인 재료를 통하여 일회성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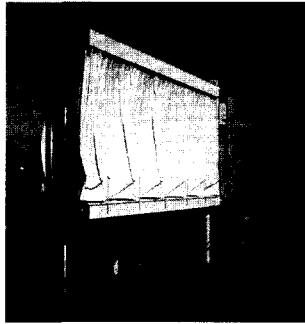


그림 5. Shigeru Ban, Curtain Wall House, Tokyo, 1995.

복잡한 도시내의 투명한 주거의 예로 커튼월 하우스(Curtain Wall House)는 공적이고 사적인 영역의 범위가 급속히 사라졌다. 2, 3층의 외벽에 사용된 장막은 빛과 바람에 의해 비물질화되고 거주자의 선택에 의해 시각적 개방을 찾고 서로 상호관련성을 가지며 새로움과 호기심을 자극한다.

2) 외부공간의 내부화



그림 6. Rem Koolhaas, Maison a Bordeaux, France, 1998.

렘 쿨하스(.Rem Koolhaas)의 보르도 저택(Maison a Bordeaux)에서 내부공간과 유리 입면을 사이에 두고 맞대고 있는 외부 공간은 실제로 외부 공간이라기 보다는 지붕없는 내부공간이다.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은 시각적으로나 공간적으로만 얽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으로도 외부공간에서 내부 공간에서와 같은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외부 공간들은 주로 각 개실에 부가된 정원이나 테라스, 수영장과 파티오, 외부 식당 등으로 형성되어 있다. 여기서 외부공간은 내부공간다운 속성이 외부까지 확장된 것으로 외부공간이 외부성을 잃고 내부화 되었다. 브라스캣(Brasschaat)에 있는 주택에서 각각의 개실들은 외부공간을 가지고 외부공간

을 향하고 있는데, 특히 아이들과 부모가 각각의 개인 정원을 가지고 있어 이들은 한 건물 안에 세 개의 다른 공간으로 인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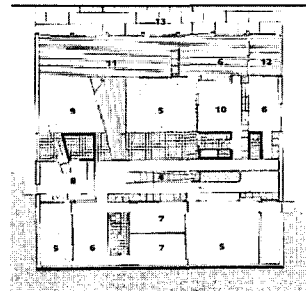


그림 7. Xaveer de Geyter, House in Brasschaat, Belgium, 1992.

2. 다목적 기능

1) 개방 평면

주거에 오픈 플랜의 도입은 벽이라는 물리적 장벽 대신 불박이장이나 가변벽의 사용으로 영역을 구분짓고 내부를 통합시키는 방법으로 가변고 유동적이고 공간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시각적으로 개방되었다. 부엌 가구들은 가변벽에 비해 높이가 낮기에 거실과 식당이 공간적으로 통합되어 보이고 거실 부분과 침실 부분의 뚜렷한 양분화가 진행되었으나 점차 한 평면 안에서 암시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다가 거실은 가정의 중심 공간이라기 보다는 개실의 하나로 자리 잡아가면서 가족 구성원간의 소통도 줄어들게 된다. 개실의 변화가 극에 달하고 중심 공간이 사라지면서 내부의 벽들은 유리벽들을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통합되면서 기능적으로는 완벽히 분리되었다. 개실의 고립화 과정을 통해 개인의 고립도 함께 진행되어 오픈 플랜임에도 불구하고 개실간의 독립성은 과거주택 이상으로 크다.

아틀란타의 웨이크필드 주택은(Wakefield House)는 방과 방 사이의 많은 간막이 벽을 제거하고 집의 상층을 거리와 면한 수영장으로 바꾸고 반투명 유리를 그 사이에 설치함으로써 시각적 차단을 시도하였다. 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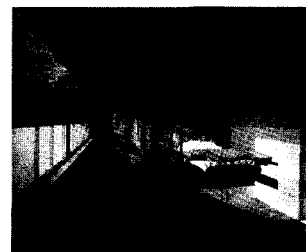


그림 8. Scogin Elam&Bray, 64Wakefield, Atlanta, 1997.

공적, 사적 공간에 대한 아래층, 위층 패턴을 깨뜨려 부부침실 구성에서 취침 공간은 위층에, 드레스 룸은 아래층에 두어 하나의 단순한 평면적 형태가 아닌 중첩된 공간으로 다음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한다. 모호하고 끝없이 열린 방들은 부분적으로 높은 벽을 가지는 반투명 유리에 사용에 의해 열린 공간을 가능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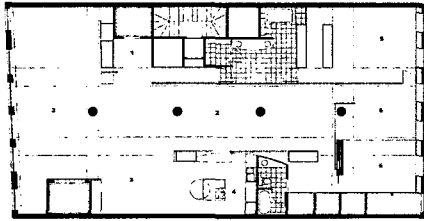


그림 9. Thomas Hanrahan & Victoria Meyer, Holly Loft, New York, 1995.

풍부한 텍스처의 표면과 다양한 재료로 특징지어지는 할리 로프트 주거(Holly Loft)는 독신 남자를 위해 디자인되었는데 침실은 약간의 여유나 구석 없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유리에 의해 공개되고 반투명한 유리 스크린을 욕실과 거실에 같이 사용하였다. 이러한 예기치 않던 침실에서 욕실의 시선은 상당한 긴장감을 연출하고 혼자 사는 기능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2) 선택적 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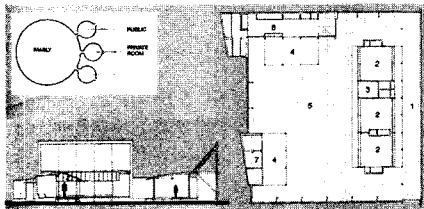


그림 10. Riken Yamamoto, Okayama House, Tokyo, 1997.

야마모토의 단독주택에서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개개인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각각의 방은 주거 외부와의 공간과 직접 연결되고 주거 내부의 공적 영역은 침실 뒤쪽으로 놓여져 개인의 선택에 의해 사용하도록 하였다.

네델란드 신진건축가그룹인 MVRDV는 공간을 구성하는 물리적 골격 자체에 임의성을 적용하였다. 하나의 접혀진 평면이 바닥과 천장, 벽을 형성하고 천장의 일부분이 공간 속으로 돌출하여 있는데 이렇게 처리된 공간 속에는 하나의 실과 이동 동선이 담겨져 있다. 벽과 길 사이의 전도현상이 일어나면서 공간을 구성하는 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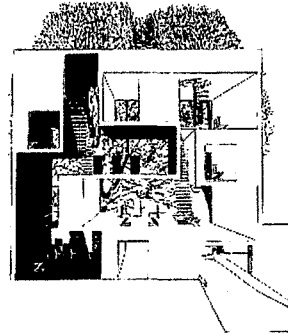


그림 11. mrvd, Double House Utrecht, Netherlands, 1995-1997.

대적 질서의 역개념이 제시되고 있다. 공간 사이를 임의적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볼륨은 공간 의도를 더욱 분명히 해주고 동선의 임의성을 강조한다.

3. 디지털 · 표면의 건축

1993년 이후 AD에서 발표된 ‘Folding in Architecture’를 선두로 새로운 기술의 발달이 주거 공간의 변화를 초래하고 서로의 경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⁹⁾. 건축에서의 단면은 그 경계가 불분명하게 되어 수직선과 수평선이 공유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수직동선들 사이의 유연한 비선형적인 변환으로 부드러운 연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은 최근 다면적인 건축에 대한 계속되는 가능성 속에 형태에 대한 어떤 분명하고 제한적인 극단이 없고 또 표면이 그 형태를 구별해 내고 정의한다는 주류가 확대되고 있음을 주지할 수 있다.

토러스 하우스(Torus House)는 새로운 기하학의 접근을 보여 주고 형태의 연속에 의한 혼란스러움으로 건물에 대한 친숙함을 표현하고 침실공간이 거실공간과 완전히 열려져 있다.

모비우스 하우스(Mobius House)는 프로그램, 동선,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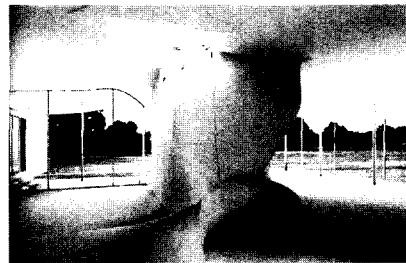


그림 12. Preston Scott Cohen, Torus House, New York, 2001.

9) 아울러 기존의 폴딩이론은 그 이론적 배경으로 보아 형태의 초점보단 프로그램의 새로운 생성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림 13. UN Studio, Mobius House, The Netherlands, 1998.

조의 접합부를 구별할 수 없는 상태로 통합하여 다양한 상태를 서로 엮음으로서 다분화된 행위들을 하나의 구조 속에 응축할 수 있게 한다. 더욱 조각적인 방법으로 거주와 작업을 봉합없이 연결하여 새로운 성격을 규정 짓고 있다. 분배된 공간이 되고 두 개의 실재가 각각의 경로를 움직이다가 특정 지점에서만 특성을 공유하게 된다. 이용자는 공간의 특정 지점에서 동선과 프로그램의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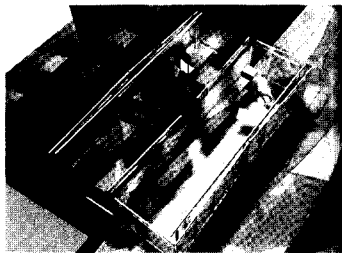


그림 14. Michael Bell, Glass House@2°, Houston, 2000.

글라스 하우스(Glass House@2°)는 표준적이나 형태의 역사를 다시 재고하게 하는 Bell의 디자인으로 가볍고 의도적으로 왜곡되는 마치 조여지는 듯한 파노라마적인 볼륨을 가진다. 그것은 미스의 작업과는 다르게 정확히 완전한 형태를 정의할 수 없다.

크라믈리히 주거(Kramlich Residence)에서는 스크린을



그림 15. Herzog&de Meuron, Kramlich Residence, California, 2000.

통해 주거의 영역과 비디오 전시의 영역이 어디가 처음이고 마지막인지를 구별할 수 없게 하였다.

IV. 결 론

주거 건축은 인간의 모든 감각으로 느끼는 삶을 지닌 문화로 가족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가족이 아니라 개개인이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되고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주거의 기능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통해 등장한 비사적 주거의 건축적 특성은 우선 인간 본위의 공간으로 일과 주거를 동시에 가지는 다목적 기능과 위계와 분리가 없는 개방적, 선택적 평면을 가진다. 또, 철골과 유리 등 재료를 통한 비 물질화로 주거 내 외부에 변화가 일어나고 기술을 통한 디지털 건축을 성립시킨다.

주거의 기능은 인간 생활상의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풀이될 수 있다. 특히, 주거 건축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의 직접적 생활상의 반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변화된 주거생활의 요구에 대응하는 현대의 주택으로서 비사적 주거가 제안된 배경을 살피고 그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앞으로의 주거 계획 및 주택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의 마련이라는 성과를 기대한다.

덧붙여 전통적 사적 주거는 근대 이후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본 연구의 대상인 비사적 주거는 현재, 일부 개인이나 선택 가족에 의해 국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미래의 변화상을 고려해 볼 때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David Jenkins(1998), James Steele, Pierre Koenig, Phaidon Press.
2. Jessica Cargill Thompson(2001), 40 Architects under 40, Taschen.
3. Wolhelm Klauser(1999), Riken Yamamoto, Birkhauser Publishers.
4. Quaderns 227(2000), Habitualmente, Habitually.
5. Jaime Salazar&Manuel Gausa(1999), Single Family Housing - The Private Domain, Birkhauser Actar.
6. Barcelona Art Report(2001), The Un-Private House, Exhibition Catalogue of Contemporary Art Museum in Barcelona.
7. Deyan Sudjic(1999), The twentieth-century house, Glasgow.
8. Gilles Deleuze, 권영숙 조형근 역(1995), 들뢰즈의 푸코, 새길신서.
9. 이진경(2000), 근대적주거공간의 탄생, 소명.
10. 최규현(2001), 현대 건축에서 프로그램의 불확정성에 관한 연구, 홍대석론.
11. 신은기(2001), 케이스스터디하우스에 나타나는 교외주거

10) Ben van Berkel & Caroline Bos, MOVE, Goose Press, 1999, p40.

- 이미지에 관한연구, 서울대석론.
12. 김광현외, 현대주거에 나타나는 사성과 공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6권 11호.
13. 김소희(1996), 현대 건축에 나타난 투명성의 표현에 관한 연구, 홍대석론.